

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仁者以()發()

不仁者以()發().

14. 孟獻子曰 畜馬乘不察於雞豚 伐冰之家不畜牛羊 百乘之家不畜聚斂之臣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此謂國不以()爲利 以()爲利也.

15. 天命之謂() 率性之謂() 脩道之謂(). 道也者 不可()離也 可離非道也. 是故君子戒慎乎其所不睹 恐懼乎其所不聞. 莫見乎() 莫顯乎() 故君子慎其獨也.

16. 喜怒哀樂之未發 謂之() 發而皆中節 謂之().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天下之()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17. 子曰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者過之 ()者不及也 道之不明也 我知之矣 賢者過之 不肖者不及也. 人莫不飲食也 鮮能()也.

18.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可辭也 ()可蹈也 ()不可能也

19. 詩云 鳶飛戾天 魚躍于淵 言其上下察也. 君子之道 造端乎() 及其至也 察乎天地.

※ 다음 문장을 해석하시오 (20 ~ 22)

20. 其本亂而末治者否矣 其所厚者薄 而其所薄者厚 未之有也

21. 長國家而務財用者 必自小人矣. 彼爲善之 小人之使爲國家 菑害並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

22.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수고하셨습니다

(정답)

- | | | |
|--------------------|-------------------|-----------------------|
| 1. 至善 | 2. 本末, 終始, 道 | 3. 脩身 |
| 4. 慈, 信 | 5. 道學, 自脩, 恟慄, 威儀 | 6. 自謙, 慎其獨 |
| 7. 肺肝, 慎其獨 | 8. 恐懼, | 9. 惡, 碩 |
| 10. 使衆 | 11. 桀紂 | 12. 絜矩 |
| 13. 驕泰, 財, 身, 身, 財 | 14. 利, 義 | 15. 性, 道, 教, 須臾, 隱, 微 |
| 16. 中, 和, 達道 | 17. 知, 愚, 知味 | 18. 爵祿, 白刃, 中庸 |
| 19. 夫婦 | | |
20. 그 근본이 어지럽고 말단이 다스려진자는 있지 아니하고 두텁게 해야할 바에 박하게 하면서 박하게 해야할 바에 두텁게 하는 자는 있지 아니하다.
21. 국가의 어른이면서 재용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소인으로부터 비릇되니 저 소인으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 재해가 함께 이를 것이니, 비록 선한자가 있더라도 또한 어찌할수 없을 것이다.
22. 공자왈 순은 큰지혜이실 것이다. 순은 문기를 좋아하시고 천근한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시고 악을 숨겨주시고 선을 드러내셨으며, 그 양단을 들어 그 가운데(중용)를 백성들에게 쓰시니, 이 때문에 순이 되신 것이다.